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

권영은^{1*}, 김선영²

¹청운대학교 간호학과, ²부천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the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Young-Eun Kwon^{1*}, Seon-Young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편의표출한 충청남도 소재 2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노인대학에 등록된 자료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187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독거노인의 전체죽음불안은 2.94(±0.32)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죽음과정의 불안 3.06(±0.32)점, 사후죽음의 불안 2.88(±0.51)점, 존재상실의 불안 2.75(±0.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특성에 따른 전체 죽음불안수준은 여성노인이 남성보다($t=125.39, p=.001$), 나이가 적을수록($F=1.16, p=.003$), 경제수준이 낮을수록($F=3.36, p=.000$), 가족관계가 좋을수록($F=0.43, p=0.34$), 종교가 있는 경우($t=125.39, p=.000$)에 죽음불안이 높았다. 죽음불안은 우울할수록($r=.192, p=.009$), 영적안녕이 낮을수록($r=-.234, p=.002$) 삶의 질이 낮을수록($r=-.190, p=.009$) 높았으며,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 우울, 영적안녕으로 경제상태($\beta=-.36, p=.000$)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력은 20.3%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해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재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ath anxiety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death anxiety. The subjects did not have an impaired cognitive function, and were from one Chungcheongnamdo 2 district in the elderly University. The subjects were 187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living alone in the district. The character, communication, and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2014 to 2 May, 2015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8 program. The death anxiety whole point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as 2.94 (±0.32); it was 3.06 (±0.32) points according to the sub-region 'death process anxiety', 2.88 (±0.51) points according to 'after-death anxiety', and 2.75 (±0.43) points according to 'presence loss anxiet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ath anxiety were economic status, depression, and spiritual wellbeing. Economic status ($\beta = -.36, p = .000$) had the largest effect with an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20.3%. Therefore, for the death anxiety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life needs to be strengthened through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depression and spiritual wellbeing.

Keywords : Death Anxiety, Depression, Elderly Living Alone, Quality of Life, Spiritual Wellbeing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죽음은 삶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확실적인 특성을 가진 현상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죽음은 노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누구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려

본 논문은 2013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Eun Kwon(Chungwoon Univ.)

Tel: +82-41-630-3434 email: kyedr@chungwoon.ac.kr

Received February 19, 2016

Revise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들지 않는다.

중세 초기 죽음을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받아들였으나 20세기 이후의 죽음은 두려워하고 멀리해야하는 금지된 죽음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1, 2].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최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3].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는 삶과 죽음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더불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0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으며, 2035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45%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개인과 사회가 아무런 준비 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5]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도움, 보호, 간병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고독, 빈곤, 질병 등의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일반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비율과 경제적 빈곤율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6].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죽음에 대한 불안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고령화와 가족체계와 기능의 변화로 영향을 받으며, 노년기 죽음수용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기도 한다[7]. 그러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결과를[8] 통해 가족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죽음불안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삶을 정리해야하는 시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 안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하다. 영적안녕은 인간의 영적 요구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종교적 안녕감과 삶에 만족하는 실존적 안녕감을 포함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험하는 역할상실, 건강상의 문제, 미지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간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5]. 더욱이 영적안녕은 죽음불안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9].

교육수준,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주

택소유, 친인척·친구 매일 접촉 여부, 수면시간, 체질량지수, 쉬지 않고 열 계단 오르기는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0] 독거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우울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독거노인의 우울 유병율은 41.2%로 일반노인에 비해 높았다[11].

최근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 중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5] [12, 13],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14, 15]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16-19] 등이 존재할 뿐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의 관계 분석 및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개선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2)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충청남도 소재 2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노인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인지기능 장애가 없으며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연구자 2인과 독거노인 돌봄이 8인에 의하여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이해하고 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문장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저하로 직접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설문지 내용을 읽어 주고 응답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회수한 19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한 3부를 제외한 총 187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표본수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30, 검정력(1-β)=.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134명이 요구되어 표본수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우울 15문항, 영적안녕 20문항, 삶의 질 29문항, 죽음불안 20문항 등 총 91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1 우울

Song(1991)이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 scale(GDS): Short Form(GDS-15)을 수정·보완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20]. 각 문항의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고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최소 0점에서 최대 15점의 점수범위이며, 5점 이상이면 경한 우울, 10점 이상이면 중증 우울로 판정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2.3.2 영적안녕

Paloutzian &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안녕 측정 도구를 Kang(1996)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21]. 이 도구는 종교적 안녕영역 10문항과 실존적 안녕영역 10문항의 2개 하부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2개의 긍정적인 문항(2, 4, 6, 7, 8, 9, 10, 12, 14, 15, 17, 20)과 8개의 부정적인 문항(1, 3, 5, 11, 13, 16, 18, 19)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부정문항은 역 환산 처리 하였다. 점수는 ‘언제나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 이었다. 하위영역에서 종교적 안녕은 .85, 실존적 안녕은 .82이었다.

2.3.3 삶의 질

Kim(2004)이 한국노인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2]. 각 문항은 ‘대단히 불만족’ 1점에서 ‘대단히 만족’ 5점까지 등간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이었다.

2.3.4 죽음불안

Oh(2003)의 죽음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3]. 이 도구는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 등 3개 불안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등간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3.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절차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문 도중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설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의 동의를 받았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분석방법(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으로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 죽음불안수준을 파악하였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을 파악하고자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죽음불안과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79.1%는 여성이었으며, 전체 61.0%의 연령은 70-79세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체 47.6%를 차지하였으며 무학인 경우도 15.5%로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96.3%는 결혼을 한 경험이 그리고 88.2%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4.9%는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15.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1.4%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경제적 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과의 관계는 56.7%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9	20.9
	Female	148	79.1
Age (years)	65-74	50	26.7
	74-84	114	61.0
	85 ≥	23	12.3
Education level	Ineducation	29	15.5
	Elementary school	89	47.6
	Middle school	45	24.1
	High school	21	11.2
	College or beyond	3	1.6
Have a religion	Yes	140	74.9
	No	47	25.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10	5.3
	Bad	81	43.3
	Fairly	67	35.8
	Good	26	13.9
	Very good	3	1.6
Economic status	Very bad	25	13.4
	Bad	26	13.9
	Fairly	96	51.3
	Good	36	19.3
Relationship of family	Very good	4	2.1
	Fairly	81	43.3
	Good	90	48.1
	Very good	16	8.6

3.2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 죽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우울 4.01±1.41, 영적안녕 3.04±0.66로 하위영역인 종교적 안녕은 2.98±0.66, 실존적 안녕 3.05±0.69이었으며, 삶의 질은 2.96±0.39, 죽음

불안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죽음과정의 불안 3.06±0.32, 사후결과의 불안 2.88±0.51, 존재상실의 불안 2.75±0.4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quality of life, death anxiety score of subjects (N=187)

Variables	Mean	SD	Min	Max
Depression	4.01	1.41	1.00	8.00
Spiritual well being	3.04	0.66	1.90	4.80
religious aspects	2.98	0.67	1.40	5.00
existential aspects	3.05	0.69	1.50	4.60
Quality of life	2.96	0.39	1.97	3.97
death anxiety	2.94	0.32	2.15	3.90
presence loss anxiety	2.75	0.43	1.40	4.00
death process anxiety	3.06	0.32	2.30	3.90
after-death anxiety	2.88	0.51	1.60	4.20

3.3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의 관계

독거노인의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이 심할수록($r=.192, p=.009$), 영적안녕이 낮을수록($r=-.234, p=.002$), 실존적 안녕이 낮을수록($r=-.278, p=.000$), 삶의 질이 낮을수록($r=-.190, p=.009$) 죽음불안이 높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quality of life and death anxiety (N=187)

Variables	death anxiety
depression	.192 (p=.009)
spiritual wellbeing	-.234 (p=.002)
religious aspects	-.055 (p=.455)
existential aspects	-.278 (p=.000)
quality of life	-.190 (p=.009)

3.4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의 하위영역별 차이

독거노인의 특성에 따른 전체 죽음불안수준을 보면 <표 4>와 같이 여성(2.97±0.33)이 남성노인(2.84±0.25)에 비해, 나이가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을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죽음불안이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은 ‘성별’, ‘연령’, ‘경제상태’, ‘가족관계’,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 죽음과정의 불안

Table 4. Difference of presence loss anxiety, death process anxiety, after-death anxiety and death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Death anxiety			Presence loss anxiety			Death process anxiety			After-death anxie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9	2.84±0.25	125.39	.001	2.63±0.32	87.03	.000	2.99±0.29	130.27	.000	2.71±0.43	77.52	.000
	Female	148	2.97±0.33			2.78±0.45			3.08±0.33			2.92±0.52		
Age (years)	65-74	50	2.96±0.31	1.16	.003	2.76±0.45	1.87	.006	3.07±0.35	0.27	.274	2.94±0.47	3.03	.002
	75-84	114	2.98±0.32			2.80±0.41			3.08±0.31			2.92±0.52		
	85 ≥	23	2.73±0.28			2.49±0.42			2.96±0.32			2.54±0.37		
Education level	Ineducation	29	2.98±0.31	0.37	.467	2.86±0.39	0.93	.293	2.30±0.27	0.44	.369	3.06±0.47	.002	.006
	Elementary school	89	2.97±0.34			2.75±0.46			3.07±0.35			2.92±0.48		
	Middle school	45	2.93±0.32			2.76±0.44			3.05±0.30			2.84±0.57		
	High school	21	2.83±0.24			2.62±0.35			3.07±0.32			2.56±0.41		
	College or beyond	3	2.93±0.35			2.47±0.31			3.37±0.38			2.53±0.50		
Economic status	Very bad	25	3.20±0.24	3.36	.000	3.15±0.22	7.96	.000	3.14±0.23	1.11	.028	3.34±0.42	3.66	.000
	Bad	26	3.01±0.25			2.89±0.40			3.05±0.29			3.01±0.41		
	Fairly	96	2.94±0.33			2.74±0.41			3.10±0.34			2.84±0.51		
	Good	36	2.73±0.26			2.46±0.38			2.91±0.33			2.61±0.40		
	Very good	4	2.84±0.13			2.45±0.19			3.13±0.15			2.55±0.19		
Health status	Very bad	10	2.89±0.40	0.43	.386	2.70±0.65	1.06	.224	3.00±0.21	0.60	.215	2.84±0.83	.01	.754
	Bad	81	2.98±0.33			2.77±0.43			3.11±0.32			2.91±0.53		
	Fairly	67	2.93±0.28			2.78±0.39			3.02±0.32			2.83±0.44		
	Good	26	2.85±0.37			2.61±0.45			2.95±0.43			2.85±0.48		
	Very good	3	3.05±0.10			3.13±0.23			3.07±0.15			3.13±0.61		
Family relationship	bad	16	2.94±0.36	0.69	.034	2.58±0.37	2.911	.000	3.23±0.37	0.61	.051	2.69±0.43	9.13	.007
	Fairly	90	2.88±0.33			2.66±0.44			3.03±0.34			2.80±0.52		
	Good	81	3.01±0.29			2.89±0.40			3.06±0.28			3.01±0.48		
Religion	Yes	140	2.96±0.33	125.39	.000	2.74±0.43	87.03	.000	3.08±0.31	130.27	.000	2.89±0.54	.000	.000
	No	47	2.91±0.29			2.77±0.44			2.99±0.35			2.86±0.41		

은 ‘성별’, ‘경제상태’, ‘종교유무’만이, 사후죽음의 불안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경제상태’, ‘가족관계’, ‘종교유무’의 특성에 따라 불안수준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3.5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종교유무),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 등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분석시 경제상태($\beta = -.356, t = -5.334, p = .000$), 경제상태와 우울($\beta = -.178, t = 2.710, p = .007$), 경제상태, 우울과 영적안녕($\beta = -.174, t = 2.609, p = .010$)이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상태는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을 15.2% 설명하였고, 우울과 영적안녕은 5.1%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총 20.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ath anxiety (N=187)

Variables	B	SE	β	t	AdjustedR ²	F
Constant	3.372	.124		27.16***		
Economic status	-.119	.022	-.356	-5.33***	.152	34.35***
Depression	.041	.015	.178	2.71***	.177	21.06***
Spiritual wellbeing	-.084	.032	-.174	-2.61**	.203	16.75***

** $p < .01$, *** $p < .001$

4. 논의

독거노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족으로부터 도움, 보호, 간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은 2.94점(4점 만점)으로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죽음과정의 불안 3.06점, 사후결과의 불안 2.88점, 존재상실의 불안 2.75

점 순으로 자신의 존재상실보다 혼자 죽어가는 것과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009)의 연구에서 죽음불안 2.61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죽음과정 불안 2.94점, 사후결과 불안 2.56점, 존재상실 불안 2.37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Choi(2007)의 연구에서도 전체 죽음불안 2.50점, 죽음과정의 불안 2.80점, 사후결과의 불안 2.40점, 존재상실의 불안 2.27점[24]으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죽음과정과 추후결과의 불안이 존재상실의 불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임종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대한 복합적 감정[8]으로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학습된 감정으로 고통스럽게 혼자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거노인의 우울이 심할수록($r=.192, p=.009$), 영적안녕이 낮을수록($r=-.234, p=.002$), 실존적 안녕이 낮을수록($r=-.278, p=.000$), 삶의 질이 낮을수록($r=-.190, p=.009$) 죽음불안이 높았다. Lee(2012)는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가족기능이 좋고,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25, 26] 죽음불안과 영적안녕,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13][27]. 본 연구에서는 영적안녕의 하위영역 중 종교적 안녕은 죽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실존적 안녕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았다. 그러나 종교유무가 전체 죽음불안 및 하위영역별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차이가 있어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단지 종교의 유무가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 종교적 특성이나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8]. 또한 죽음불안은 단순한 죽음뿐만이 아닌 죽음과정과 사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26] 영적안녕 또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종교적 안녕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별, 연령, 경제상태, 가족관계와 종교유무는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죽음불안의 하위영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경제상태, 종교 유무였으며, 교육정도는 사후결과의 불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이후의 불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존재상실의

불안을 제외한 죽음과정의 불안과 사후죽음의 불안은 종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높았다. 이는 Kim과 Kim(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죽음에 더 감정적이며, 죽음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불안이 높다고 보았다[8]. 종교와 죽음불안의 관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은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8][13][26][29]로 고학력일 경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죽음불안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상태, 우울, 영적안녕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20.3%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특히 경제상태는 가장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의 연구(2009)에서는 경제상태가 죽음불안에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나, Kim과 Lee의 연구(2013)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죽음불안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경제적 안녕으로 삶에 긍정적 태도를 지니기 때문에 영적안녕에 영향을 주어[29] 죽음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2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노인대학에 등록된 187명을 대상으로 우울, 영적안녕, 삶의 질,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관계와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독거노인이 우울할수록, 영적안녕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았으며, 경제상태, 우울, 영적안녕은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우울과 영적 안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의 특성상 경제상태가 죽음불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및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대학에 등록된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M. Lee, Translation, 1998, Philippe Aries, L'homme devant la mort, Paris: seuil, 1983.
- [2] S. Y. Kim, A study on the cultural experience of death and rituals between Korean women and Married Female Immigra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15.
- [3] 'Well-dying' Law, enforemen since 2018. a target and requirement?, JTBC 2016-01-09, <http://news.jtbc.joins.com>, accessed June, February, 4, 2015.
- [4]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uture household estimate report. 2014, <http://kosis.kr>.
- [5] K. J. Lee, E. Lee, Factors Affecting Spiritual Well-being in Underprivileged Older Women Living Alone,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4, pp. 538-546, 2011.
- [6] J. K. Lee, J. H. Kim, A Study on th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Vol.14, No.3, pp. 191-211, 2013.
- [7] K. M. Lee, K. S. Kyung, Ethnography Case Study on the Village Community of the Elderly Dy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5, No.2, pp. 509-524, 2015.
- [8] Y. S. Kim, J.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9, No.1, pp. 275-289, 2009.
- [9] D. H. Lim, Study of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Practical Wellbeing on Death Anxiety among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Vol.2, No.2, pp. 33-51, 2014.
- [10] H. R. Kim, Comparison of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Its Risk Factors among the Elderly Female and Male Living Alone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0, No. 1, pp. 13-27, 2014.
- [11]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Report on the Korean National Older Adults Life Survey.(Issue No. 11-1351000-000316-12). Seoul: Author. 2012, pp. 303.
- [12] H. K. Kim, H. J. Lee, S. M. Park,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279-292, 2010.
- [13] K. M. Nam, The Influence of Social Activity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derly Women living alone on Their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Death-Anxie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2, pp. 325-348, 2011.
- [14] C. S. Rim, G. S. Jang, M. S. Jeong,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22, pp. 193-224, 2013.
- [15] Y. D. Song, J. A. Son, S. M. Park, An analysis of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2, pp. 643-660, 2010.
- [16] I. K. Seo, H. C. Cho,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A Comparative Study o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61, pp. 135-162, 2013.
- [17] J. N. Soh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or Live with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2, pp.118-12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2.118>
- [18] H. R. Kim, E. H. Kim,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its Risk Factors between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Living with Oth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1, pp. 463-477, 2014.
- [19] I. K. Seo, Y. S. Le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Environment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Do No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9, pp. 383-415, 2015.
- [20] M. S. Song, Construction of a functional status rediction model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1.
- [21] J. H. Kang, A Investigate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of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1996.
- [22] Y. S. Kim, A study on the living arrangement, housing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004.
- [23] M. N. Oh, A study o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home and in fac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2003.
- [24] W. S. Choi, A Study on the Elderly's Ego Integrity and Death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7, No. 4, pp. 755-773, 2007.
- [25] J. I. Lee,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the Middle Age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No. 3, pp. 572-580,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72>
- [26] K. E. Chang,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9, No. 49, PP. 267-286, 2010.
- [27] M. Y. Chung, K. S. Cha, O. H. Cho,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Spiritual Wellbeing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67-374,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67>
- [28] J. I. Lee, S. Y. Kim,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the Age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5. No. 1, pp. 28-37, 2011.

- [29] S. Y. Kim, J. I. Lee, Self-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3, pp. 480-489,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480>

권 영 은(Young-Eun Kwon)

[종신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1997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5년 3월 ~ 2009년 8월 : 을지대학(성남) 간호학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간호, 노인간호, 삶의 질

김 선 영(Seon-Yo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임종, 삶의 질, 죽음의 질, 생명의료윤리